

연변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방식의 실태조사*

—A Survey of Child-Rearing Practice and Family Life of Korean-Chinese Families
in Yanbian Area—

경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조복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재연

동덕여자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 윤종희

Dept. of Housing, Family & Child Studies, Kyunghee Univ.

Prof: Cho, Bok Hee

Dept. of Child Welfare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

Prof: Lee, Jae Yeon

Dept. of Home Economics, Dongduk Women's Univ.

Associate Prof: Yoon, Chong Hee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내용

IV. 결과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wo hundred and fifty two Korean-Chinese women were administered the Questionnaire regarding child-rearing practice and husband-wife relations, with an assumption that Korean-Chinese in Yanbian area would preserve the traditional value in family life because of the cultural frozen phenomena.

The results of the data for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at they keep some traditional child-rearing practice such as the prenatal education and the first-year birthday party. However, the value of boy preference was not widely prevalent in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equality in husband-wife relation was not found to be attained even though in Communist society.

* 이 연구는 1991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부모의 양육행동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인간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가치관에 의해 달라진다. 문화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은 달라지며 이것이 아동의 성격과 행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방법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89).

중국과 한국은 가족을 강조하는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부계가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교를 중요시하는 것과 모유의 수유행위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점, 어려서부터 성별에 의한 차별적 양육을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 볼 수 있다.

반면 가족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 문화권에서는 가족의 윤리에서 강조하는 측면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속성 상의 차이점이 자녀양육행동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확대가족을 원형으로 하는 중국에서는 남녀의 성별에 의한 차별은 있으나 아들 사이에는 상속상의 차별이 없듯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이 없다(이광규, 1985). 이렇듯 유사한 문화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문화는 세세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그 차이점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 문화에 따라 아동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리적인 위치상으로는 중국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생활방식 및 문화적인 유산은 한민족의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선족 자치주인 특수지역 거주자의 가족생활과 육아방식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관심이 제기된다.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약 200만명으로 연변자치구를 중심으로한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과 세대의 교체, 문화의 발전 등으로 다소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래된 한국의 전통적 풍습이나 관습이 외부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채로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다고 보여진다. 급격한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아동양육방법이 서구화된 우리사회와는 달리 폐쇄된 사회체제로 인해 타문

화권과의 교류가 적었던 고로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 육아방식이 남아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연구의 방향을 잡아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조사하고 가족생활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고유의 전통적 가족생활과 자녀양육 행동 및 가치관과 비교할 수 있는 민속학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연변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상적으로 북한에 더욱 밀착될 수 밖에 없었던 연유로 육아방식을 포함한 여타의 생활방식 또한 북한 문화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으리라 가정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자료로 어느 정도는 북한 사회의 가족생활 및 자녀 양육 행동의 분석적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작업은 장차 통일에 대비한 유아교육 방법의 모색에도 귀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잔존

자본주의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경제의 사유제를 인정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공산주의 사회는 전체적인 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 원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모두 교육에서 이 원리를 강조하여 반드시 균중적인 가치지향 그리고 집단주의 정신을 우선하는 태도를 갖도록 사회화시키고 있다. 조기교육조차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 국가 부담으로 어린이를 양육하여 혁명적 새 인간형을 보급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국가부담의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선차적 목적"이 부녀자를 자녀양육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집단노동에 참여시키자는 것이고 "다움목적"이 유아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학습효과이다(박현선, 1988). 즉 조기교육조차도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에 투철한 인간 양성을 목표로 이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공산당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할의 제고문제를 중요강령으로 내세우자 여성들의 직장진출은 급속히 증가되어 남성과 동등한 노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동등권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그에 따르는 위계질서 및 사회적 풍습 또는 도덕, 윤리 등의 전반적인 변화가 전제되고 또한 남녀구분 없이 새로운 인간형으로서의 사회의식을 갖추게 되는 상황이 선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박현선, 1988; 이은숙, 1987). 따라서 가정일은 일차적으로 여성의 일로 계속 간주되어 남아 있다(나미, 1989).

당이나 정부의 정책의 강요도 오랜 세월을 걸쳐 입수된 윤리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고 전통적 윤리는 상당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나미, 1989). 당의 정책적 제한이 있어도 부모-자녀관계는 전통적인 덕목인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또한 자식 사랑하는 것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효도와 가족관계의 중요성, 노후에 부모 봉양하는 것 등을 도덕적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본연의 정서적 기능을 크게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단편적으로나마 북한 가족제도를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이다(나미, 1989; 이은숙, 1987). 부부관계에서도 혁명적 동지관계를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약화된 형태로나마 가부장적인 남편우월관이 남아 있어 여성 스스로가 사회생활보다는 남편보필을 우선시 하고 있어(이문웅, 1984; 이은숙, 1988; 여성신문, 1992) 가정에서의 역할분담이나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성에게 과중한 이중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한다.

앵겔스(1972)는 사회제도의 발전은 노동의 발전 단계(도구의 생산)와 가족의 발전단계(인간의 생산)에 의하여 제약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경제적 생산제도의 개혁과 함께 가족제도의 사회주의적 변혁에 가장 기초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가족제도를 통해서 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변화된 가족의식을 통해서 그 사회의 변화된 가

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이든 사회주의 사회이든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불문하고 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이 되는 조직은 가족일 것이다. 가족 안에서 진행되는 일, 개인에 따른 사회화 과정은 여타 사회조직의 사회화에 선행되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가족의식의 차이나 사회의식의 차이 나아가서는 문화적인 차이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문화동결현상

한국과 북한, 중국 연변 자치주 거주 조선족은 한국적 유교적, 전통을 공유하지만 근대화 과정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실태조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제한된다. 그러나 북한과 유사한 근대화 과정을 거친 연변 자치주 거주 조선족은 중국의 정치 체계의 이데올로기적 변화과정을 거치고 중국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한국적 문화 습속은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해외 교포들은 본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버린 것들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하는데 인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동결현상(frozen phenomena)이라 일컫는다(이광규, 1992). 이광규(1992)는 잊어버린 과거의 동결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1910년 이전의 우리를 알려면 소련이나 중국에 가야할 것"을 주장한다.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에서 조선족은 11번째로 큰 소수민족으로 주로 동북 3성(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에 살고 있다. 1949년 중국의 건국과 함께 1952년 길림성 동부에 연변 조선 민족 자치구가 결성되었고 1955년 자치주로 승격되었다. 자치주에서는 민족언어로 민족문화를 교육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50년대 전반기에 이미 민족 문화 운동의 절정인 백화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백화운동은 쇠퇴했다. 이 시기에는 민족언어와 민족 풍속을 없애야 했고 중국의 통일된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학교가 복구되고 한국어로 민족문화를 부흥시

킬 수 있게 된 것은 4인방이 몰러가고 난 이후이다.

연변지역에서는 한복을 입고 초가집의 형태도 그대로 있는 곳도 있어 마치 해방당시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자치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한 풍속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광규, 1992).

Ⅲ. 연구 내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변 자치주 조선족이 보존하고 있는 전통적 육아 방식에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양육행동이라고 사료되는 태교, 출산, 수유 및 육아방식에 관한 내용과 자녀에게 가르치는 놀이 및 자녀관련 행사를 중심으로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구성 및 내용은 유안진(1990)의 연구에서 수집된 전통적인 육아습속을 참조하였다.

가족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는 육아와 관련되는 면에 국한하였다. 자녀양육시 가족구성원의 협조정도, 전통적 유교 가치관의 존속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첨가하여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2. 연구방법

작성된 설문지를 관련학문(예: 아동학, 유아교육, 가족학, 심리학 등) 전공교수 9인의 자문과 검토를 거친 후 서울지역을 방문중인 중국교포 20명을 대상으로 1992년 1월 20일에서 1월 30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언어의 변질로 이해 못하는 단어를 수정하고 문어체의 질문형태를 구어체의 서술형으로 알아듣기 쉽도록 수정하였다(예, 유모차→밀차, 장남·차남→큰아들·작은 아들, 그외 태교, 수태 및 여러 놀이의 명칭을 서술문으로 풀어서 설명함).

예비조사를 통해 보완된 설문지를 가지고 연변대학의 관련 연구소(연구소의 요청으로 연구소명을 밝히지 못함)와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이

개발한 설문지를 가지고 연변대학의 관계자들이 면접과 자료분석을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에 사는 조선족에서 임의로 추출하여 300부를 배포,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5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1992년 5월에서 1992년 7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퍼센트를 구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전통적인 육아 방식과 가족생활 실태를 주제로 잡아 공산권 거주 교포를 대상으로 연구한 국내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수집의 어려움, 관련 연구의 부족, 관련 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여러 면에서 많은 제한이 따랐다.

첫째, 중국 당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연구자들과 응답자간의 직접적인 접촉제한을 하였다. 이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제3 국민을 통하여 면접할 수밖에 없었기에 자료수집의 한계점 및 어려움이 컸다. 따라서 면접을 통한 민속학적 자료 및 습속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본 연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둘째, 연령별, 교육수준별, 전통적인 습속의 보존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려 했으나 중국당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원 자료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제한점으로 둔다.

셋째,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육아방식의 보존 정도와 가족생활 실태의 파악을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실태조사가 병행되었어야 엄밀한 의미의 비교 연구로서의 준거척도가 수립되었으리라 본다. 현 상태의 연구결과는 다만 중국 연변 자치주의 조선족의 실태를 보고한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로서 비슷한 연령, 교육, 생활정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종의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를 제안한다.

IV.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응답자의 연령은 36.1%가 40-49세 사이였으며, 34.5%가 30-39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45.7%가 고등중학교(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됨)까지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교 이상 교육받은 사람도 23%나 되었다. 응답자의 과반수(44.8%)가 지금의 생활 형편이 알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약간 부족한 경우는 30.2%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를 돌 가진 사람이 46.8%로서 과반수가 중국의 소수민족 가족계획(한 자녀 이상을 허용함)에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결혼기간은 10년 이상이 73.4%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3.1%가량이 중국에 이주한 시기가 3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전통적 육아방식에 관련된 내용

1) 태교에 관한 습속

임신 중의 금기 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좋은 날에 임신하기 위해 부부가 잠자리하는 날을 가린 경우는 전체의 25.8%이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71%로 대부분 잠자리 하는 날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신중 특별히 음식을 가리지 않은 경우가 50.8%이었으나 가린 경우도 49.2%나 되었다. 가리는 음식은 낙지, 오징어, 문어 등과 오리고기, 술, 토끼고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조심하는 행동은 없었다가 53.3%였으나 행동을 조심한 경우도 46.7%나 되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행동으로는 무거운 것 들지 않기, 상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보고 듣지 않기, 싸우지 않기, 울지 않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태교에 대한 문항에는 59.1%가 태교를 한 경우가 없었다고 하였으나 태교를 한 경우도 40.9%에 달하였다. 술 취한 상태로 수태하지 않기와 임신 후에 性交하지 않기, 안방이 아닌 곳에서 수태하지 않기에 답하였다.

2) 출산에 관한 습속

출산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아이를 낳은 곳은 병원이 78.2%로 가장 많았고, 출산과 산후조리를 한 장소는 자기 집에서 한 경우가 49.2%, 시집이 33.3%, 친정이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기를 낳았을 때 치는 금(禁)줄에 대해서는 전체의 80.6%가 모르고 있었고, 출산 후 매 7일 마다 밥과 국을 떠 놓고 삼신 할머니께 비는 풍속에 대해서도 92.1%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전통적인 금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育兒 方式에 관한 습속

(1) 자녀다루기, 업기, 목욕시키기에 관한 습속

육아방식에서는 생후 20일 이전에 딸아이의 젖꼭지를 짜 준 경우가 59.1%로 나타났고, 또 아기에게 “예쁘다” “잘났다” 등의 표현보다는 일부러 “그놈 참 못났다” “미돌이”와 같이 반대로 표현하는 경우는 전체의 30.2%에 불과하였다. 갓난 아기를 데리고 나갈 때는 업고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 때 73.4%가 처네포대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를 목욕시킬 때는 대부분이(82.9%) 머리에서 다리의 순으로 씻긴다고 응답하였다.

(2) 이름(아명)짓기에 관한 습속

아기의 이름짓기에 관한 사항을 살펴 보면 이름은 대부분 생후 10일 이내나 생후 한달 이내에 지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는 경우가 65.1%로 가장 많으나 조부모가 지어주는 경우도 25%였으며 작명가 등에게 부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름을 지을 때 항렬이나 돌림자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47.2%로 가장 많았고, 아들만 따르는 경우가 23.0%이며 아들과 딸 모두 따르는 경우는 15.9%로 대부분 항렬이나 돌림자에는 신경을 쓰지 않거나 딸에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우나 개똥이 등 아기의 수명장수를 바라며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없는 것으로(92.1%) 나타났다.

(3) 수면습관에 관한 습속

아이를 재울 때는 똑바로 눕혀서 재우는 어머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상시 아기 머리두는

방향을 엮두에 두는 어머니는 57.9%였으며, 아기를 한 방에서 데리고 잔 경우가 84.1%, 특히 3살이나 5살 이전까지 데리고 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잘때의 습관으로는 잠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 올 것, 옷을 벗어 머리 밑에 가지런히 개어둘 것, 베개나 이부자리를 밟고 다니지 말 것 등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식사습관에 관한 습속

모유와 우유중 모유를 먹인 경우가 79.0%로 압도적이며, 동생은 임신해도 대부분(70.2%) 모유를 먹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젖을 뗄 시기는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가 44.4%로 가장 많았고, 젖을 뗄 때는 젖꼭지에 쓴약이나 잉크를 바르거나(42.5%) 엄마와 잠시 떼어 놓는 경우(35.3%)가 많았고 저절로 떼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23.8%로 나타났다.

많은 어머니가 식사예절 중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한 다음 또는 먹으라는 지시가 있어야 식사를 할 것, 식사 도중 화장실 출입이나 자리를 뜨지 않을 것, 수저를 너무 멀리 또는 너무 가까이 잡고 식사하지 않을 것(너무 멀리 잡으면 먼곳으로 시집·장가를 가게 되고, 너무 가까이 잡으면 가까운 곳으로 시집·장가를 가게되므로)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5) 배변훈련에 관한 습속

아기의 대소변 가리기는 대개 6개월에서 1세 사이에 시작하는 경우가 51.6%였으며, 탁아소가 아닌 집에서 대소변 가리기를 가르친 사람은 대부분 부모(7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실수했을 때 엄하게 꾸짖는 대신 58.3%가 별로 야단을 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 또 자녀가 6-7세가 되어서도 오줌을 싸면 키를 썩워 이웃집에서 소금을 얻어오게 하는 경우는 4.4%에 불과, 이러한 습속은 거의 기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터울에 관한 습속

형제간의 터울은 세살(22.6%)에서 네살(48.1%)정도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 육아와 관련된 놀이

대부분의 어머니가 도리도리(96.0%), 짹짹(93.3%), 짹짹(90.9%), 곤지곤지(85.7%), 아기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세웠다가 놓아 서기 훈련을 시키는 놀이(77.4%), 어른이 누워 발을 아이의 배에 대고 아이를 높이 치켜올리는 놀이(77.0%), 아기를 방 모서리에 1, 2초 동안 세워 서기 훈련을 시키는 놀이(75.0%), 몸을 좌우로 흔들려주기(73.0%), 짹(71.4%), 목마타기(58.7%)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표 1〉 아기와 함께 한 놀이

놀 이	실 시 N (%)
도리도리	242(96.0)
짹짹	235(93.3)
짹짹	229(90.9)
곤지곤지	216(85.7)
아기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세웠다가 놓아 서기 훈련을 시키기	195(77.4)
어른이 누워 발을 아이의 배에 대고 아이를 높이 치켜올리기	194(77.0)
아기를 방 모서리에 1, 2초동안 세워 서기 훈련을 시키기	189(75.0)
아기 겨드랑이를 붙잡아 세워주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려주기	184(73.0)
짹	180(71.4)
어른이 자기 목 뒤로 아기를 올려놓기	148(58.7)
아이의 허리를 잡고 다른 어른에게 약간 던지듯이 건네주기	90(35.7)
어른이 자기 허리 뒤로 가로 업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똥단지 사소, 똥단지 싸게 팝니다" 하기	88(34.9)
기타	47(18.7)

났다. 이로써 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놀이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자녀관련 전통적행사

아기와 관련된 행사로는 돌을 치룬 경우가 7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백일은 49.6%가 치르고 삼칠일을 치워주는 경우는 25.8%에 불과하였다. 돌에는 78.2%가 특별한 옷을 입혔다고 응답하였다. 돌 상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연필(88.9%)과 책(90.1%) 그리고 주판(89.3%), 돈(86.1%)을 올렸고, 그 다음이 쌀(62.7%), 가위(42.5%), 팥떡(36.1%) 순이었으며 먹, 국수, 활 등을 올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天人天字文(천명에게 한자씩 받아 책으로 만든 것)을 돌 상에 놓은 경우는 0.8%로 거의 없었으며, 돌날에 命다리(흰 무명 피륙에 아동의 生年月日時, 이름, 壽命長壽를 발원하는 글을 쓴 것)을 아기 방 벽에 걸어 놓은 경우도 3.6%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돌상차림새

N(%)

돌상에 올린 음식	빈도
책	227(90.1)
주 판	225(89.3)
연 필	224(88.9)
돈	217(86.1)
쌀	158(62.7)
가 위	107(42.5)
팥 떡	91(36.1)
종 이	87(34.5)
백설기	83(32.9)
자(尺)	80(31.7)
실	79(31.3)
국 수	31(12.3)
활	28(11.1)
먹	20(7.9)
인절미	17(6.7)
수수떡	6(2.4)
기 타	64(25.4)

3. 가족생활실태에 관련된 내용

1) 가족의 자녀 양육 참여도

다른 가족의 자녀 양육 참여도를 알아본 결과 남편이 45.6%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시어머니가 30.6%, 친정 어머니가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기저귀 갈기와 아기 목욕시키기, 우유와 밥 먹이기, 탁아소 데려가기, 그리고 아이 봐주기 등 모든 영역에서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에 비해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51.6%가 자녀를 탁아소에 데리고 감으로써 다른 가족원의 자녀양육 참여 영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협조정도를 질문한 결과는 부인이 모두 하고 남편은 약간 도와준다고 응답한 경우가 40.5%, 똑같이 일을 나누어 하지 않았지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경우가 36.5% 순으로 많았고, 거의 비슷하게 양육을 분담하거나 남편이 부인보다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 경우는 각각 9.9%와 6.3%로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부장적 가족가치관의 존속정도

자식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83.7%로 대부분 자식을 원하고 있었으나, 대를 잇기 위해서나 나중에 늙어서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의 24.2%에 불과했고, 43.3%가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으로서 똑같이 때문에 아들이 꼭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65.9%가 부부관계와 부자관계를 똑같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부부관계(29.0%)가 부자관계(5.1%)보다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재산 상속에 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60%가 유산은 아들, 딸, 장·차남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고 대답하였다. 57.5%가 노부모의 봉양도 역시 아들, 딸 구별없이 모두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여 재산 상속과 부모 봉양에 대해서는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다른 가족의 자녀양육 참여 영역

참여영역 참여자	N(%)				
	기저귀 갈기	아 이 목욕시키기	우유, 밥 먹이기	탁 아 소 배려하기	아 이 봐주기
남편	70(27.8)	78(31.0)	89(35.3)	130(51.6)	95(37.7)
시어머니	77(30.6)	74(29.4)	69(27.4)	35(13.9)	89(35.3)
친정어머니	55(21.8)	55(21.8)	42(16.7)	17(6.7)	57(22.6)
기타	50(19.8)	45(17.8)	52(20.6)	70(27.8)	11(4.4)
계	252(100.0)	252(100.0)	252(100.0)	252(100.0)	252(100.0)

이로써 가계계승을 위한 자식갈기, 남아선호사상,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의한 상속차별, 장자의 노부모 봉양책임등 많은 면에서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부부의 역할분담 및 권력구조

집안의 결혼식, 회갑잔치 등 대소사의 결정권은 대부분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55.2%)으로 나타났다. 또 집안의 돈관리(75.8%)와 식사준비(84.5%), 설것이(83.0%), 빨래(78.2%)는 주로 부인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사준비나 설것이, 빨래 등을 미약한 비율이기는 하지만 주로 남편이 한다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주로 남편”이 하거나 “부부 공동”으로 한다는 사례를 합해보면 빨래가 20.6%, 설것이가 13.1%, 식사준비가 9.9%로 남성의 가사참여가 예상했던 것 만큼 높지는 않았다.

이부자리 펴고 개이기는 부부가 공동으로(31.7%)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책임면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버는 돈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대부분 남편이 50-60%(35.7%) 내지는 60-70%(28.2%)를

벌어들인다고 응답해 가사노동분담비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여성의 부담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남녀의 성역할의 차이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3.5%가 집안일에서나 바깥일에서 남자와 여자의 하는 일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33.3%이었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유추한 만큼 남녀평등을 이룩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V. 요약 및 결론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2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의 주요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통적 육아방식 중 비교적 높은 비율로 보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풍습은 다음과 같다. 임신 중 특정 음식을 가리거나 특정 행동을 조심하는 금기사항이 있었다. 아버지의 태교가 있었으며 생후 20일

〈표 4〉 집안의 大小事 결정권과 역할분담 내용

결정영역 결정권자	N(%)					
	집안의 大小事	집안의 돈관리	식사준비	설것이	빨래	이부자리 펴고,개이기
주로 부인	25(9.9)	191(75.8)	213(84.5)	209(83.0)	197(78.2)	92(36.2)
주로 남편	77(30.6)	20(7.9)	2(0.8)	13(5.2)	15(6.0)	60(23.8)
부부 공동	139(55.2)	38(15.1)	23(9.1)	20(7.9)	37(14.6)	80(31.7)
기타	11(4.3)	3(1.2)	14(5.6)	10(3.9)	3(1.2)	20(7.9)
계	252(100.0)	252(100.0)	252(100.0)	252(100.0)	252(100.0)	252(100.0)

이전 여아의 젓꼭지를 짜주는 편이었다. 외출시 치네 포대기를 이용하여 아기를 업으며 목욕시 머리에서 다리 순으로 씻겼다. 아기는 똑바로 눕혀서 재우며 5살까지는 한방에서 데리고 자는 편이었다. 대부분 모유를 먹이며 동생을 임신해도 젓먹이에게 계속 수유하고 있었다. 세살이상 터울을 두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전통놀이로는 도리도리, 짬짬, 짹짹, 곤지곤지, 꼬네꼬네, 각궁 등이 행해지고 있었다. 자녀관련 전통적 행사로는 돌이 단연 으뜸이었으며 돌복을 입혀 돌상을 차려주었으며 돌상에는 책, 주판, 연필, 돈, 쌀 등을 대부분 올려 주었다고 했다. 백일도 차려주는 경우가 반이었다.

2. 전통적 육아방식 중 거의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품습도 많다. 임신 중 태아의 일부로 부부가 잠자리하는 날을 가리는 것은 많지 않았으며 목욕시 하루는 머리에서 다리로 하루는 다리에서 머리로 번갈아 씻기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름을 지을 때 항렬을 따르지 않았으며 배개 높이 세우지 않음, 식사 전에 자기 밥을 덜어내지 말것 등도 거의 볼 수 없었다. 삼칠일을 차리거나 天人天字文, 命 다리걸기 등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생활 실태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녀양육에 있어 친정이나 시댁의 조력 보다는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상당하였다.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우유와 밥 먹이기, 탁아소 데려가기, 아이 봐주기 등 여러 면에서 협조정도가 높았다.

자녀에 대한 전통적 사고는 변화되는 양상에 있었다. 가계계승, 노후부양을 위한 남아의 필요성은 거의 쇠퇴되었고 남아선호 사상도 많이 쇠퇴되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비슷한 비율로 재산상속이나 노부모 봉양도 아들, 딸, 출생순위에 대한 구분없이 똑같이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국가가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하였고,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한다는 비율이 90% 이상이었다는 사실에서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가계계승, 남아선호, 상속차별 사상 등

에서는 쇠퇴되기는 하였으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기대되는 기능은 존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부의 역할 분담면에서는 집안의 대소사 결정권이나 경제적인 책임은 부부공동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가사의 처리 및 가사노동은 부인이 주로 담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정책적으로 남녀평등이념의 구현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여성의 의식수준이 이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통적 육아방식 중 비교적 높은 비율로 보존되고 있는 습속이 보존되지 않는 습속보다 많다고 보여지며, 전통적 가족 가치관 중 장자의 가계계승,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의한 상속차별, 남아 선호사상 등 기본적 가치관은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노부모 봉양은 일차적으로 자식이라는 점이 남아 있었고 부부의 역할 분담 및 권력 구조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사노동의 주된 분담은 여성으로 남아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당이나 정부의 정책적 강요가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여도 오랜 세월에 걸쳐 지켜졌던 한 민족 고유의 미시적 차원의 많은 윤리 및 습속은 불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변 자치주 거주 한인들의 문화 동결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사료되며 전통적 윤리 및 관습이 상당량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나 미(1989). 북한의 가족윤리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2) 박현선(1988). 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3) 연변대학 교육학 심리학 교연실(1987). 연변 조선족 교육사. 논장
- 4)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육아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 5) 이광규(1985). 「한국 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일지사
- 6) 이광규(1992). 「세계속의 한민족, 선택받은 한민

- 족」, 서울:우리 문화사
- 7) 이온죽(1987). "가족제도",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마산:경남대 극동연구소 : 249-280
- 8) ——(1988). 북한사회 연구. 서울대 출판부
- 9)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89). 「인간발달」, 서울:교문사
- 10) 한국교육개발원(1988).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 비교 연구
- 11) 한국여성개발원(1992). 가족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구-서울과 후쿠오카현을 중심으로-
- 12) Engels(1972).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Law Library.